승리를 얻더라도 승리감은 줄이자

(사사기 11:1~40)

29.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승리를 얻더라도 승리감은 죽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승리를 얻더라도 승리감은 죽이자'

'승리감(勝利感)'은 전쟁이나 경쟁 등에서 겨루어 이기는 데서 오는 우월한 느낌이나 기쁨입니다. 그런데 승리감 없는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선민은 승리를 얻게 될 때에 반드시 승리감을 죽이지 않으면 선민 됨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서도 선민 됨으로부터 이탈해서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냐면 복음은 본질적으로 승리와 기쁨의 불가분의 복합체이기 때문이고, 복음이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철저하게 승리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먼저 이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이 복음과 연결된 승리감에 도취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이긴 승리 때문인데,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주어지는 승리를 이 세상을 이긴 승리와 혼동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 안의 그 어떤 좋은 가치가 없더라도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바깥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승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기쁨이 될 만한 것과 만족이 될 만한 것의 선악을 판단하며 정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이 세상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쁨의 이유가 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요청이 없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이 승리를 혼동하여 세상 안에서 얻게 되는 승리로 착각합니다.

'세상 안에서 얻게 되는 승리'는 세상이 정한 가치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질과 땅 때문인데 이것들이 세상이 정한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가치들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기뻐하며 승리감에 빠진다면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곳이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나 아내처럼 붙어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과 영적 간음을 하는지 판가름의 기준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얻은 승리는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이 세상 가치를 얻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바로 간음이므로,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세상을 이긴 기쁨이어야 하는데, 세상 안에서는 어떠한 기쁨의 이유도 필요 없는 세상 밖에 근거를 둔 기쁨을 가진 자들로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 때에 세상 안에서 패배가 주어지더라도 선민에게는 패배감도 없게 됩니다. 세상 안에서 주어지는 승리가 승리감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안에서 주어지는 패배가 패배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안에서는 승리감을 주는 승리도 없고 패배감을 주는 패배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을 잃으면 패배하는 것이므로, 세상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승리감은 죽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승리를 많이 하더라도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첩의 자식도 아니고 기생은 창녀이기 때문에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는데 길르앗 장로들까지도 동조합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타지에서 살았는데 입다가 인품과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잡류가 모였다”고 하는데 ‘잡류’는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로 쓸모없는 자들로 내팽개쳐진 자들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돕 땅에 머물며 우두머리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창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자 길르앗 사람들이 난국에 부딪히게 됩니다. 궁리 끝에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입다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묻자, 길르앗 장로들의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입다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합니다. 30~31절에 “암몬 자손을 자기 손에 붙여서 승리를 얻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승전 소식을 듣고 나오는 자기 집안의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데 왜 이럴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들의 해석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그 동기는 열정적이고 순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백한 율법을 어기고 승리를 주시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고귀한 인명을 미끼로 신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이방의 우상숭배와 여호와 신앙을 혼동한 것이었다. 한 마디로 입다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자였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입다처럼 부족한 자를 들어서라도 그 크고 놀라운 구속사를 끊임없이 진행하시며 심지어는 자신이 구속사의 도구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를 구속사의 도구로 쓰신다.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경솔하게 입다가 서원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다 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9절, 11절, 23절, 24절, 27절, 29절, 32절, 35절 그리고 그 딸까지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암몬의 왕과 영토 문제 때문에 담판을 벌일 때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행적을 너무나도 잘 공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번제의 서원을 드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전쟁에 이겨서 돌아올 때에 제사를 드리려면 감사제를 드리면 되고,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나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서원제요 자원제이므로 감사제를 드리면 됐는데 굳이 번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대할 때에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오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행동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이전의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이 행동이었으므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행동은 X-Ray 사진과 같습니다.

입다가 번제를 이야기한 것은 기드온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다도 기드온의 이야기를 알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삼백 명을 데리고 십삼만 오천 명을 물리친 후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중앙 성소의 제사장만이 입는 것인데, 자신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 삼백 명으로 십삼만 오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하나님의 뜻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유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매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매력에 도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11장에서 입다의 얘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보면 입다의 신앙은 기드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드온은 몇 번의 확증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입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승리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한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후에 번제 서원 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고 이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고 벌렁벌렁하면서도 전쟁을 이긴 후에 자기도 기드온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자신이 기드온처럼 승리에 도취되고 승리에 감염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에봇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승리에 도취될 자기 자신을 보고 번제를 서원한 것입니다. '번제'는 번제물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타죽을 때에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죄의 장아찌이기 때문인데, 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발버둥치는 마음의 성향을 알았던 것입니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이라고 한 것은 승리의 확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기드온처럼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보다 승리를 더 좋아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좋아할 것이 분명하

기 때문에 죄적인 나를 죽이는 번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동물을 드리는 것으로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물 하나 죽이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사1: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제물을 죽이는 제사를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안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동물로 번제를 드릴 정도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승리를 하는 순간에 입다의 마음속에는 이제 집안사람 하나를 번제로 드려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승리감에 도취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죽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안사람 하나를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것이고, 무남독녀 딸도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입다의 서원과 행동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행동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인신제사와 동일시해서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다가 번제를 서원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세상적인 기준에서 승리가 주어질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승리감에 도취되고 감염되어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를 더 좋아하고 그 결과물을 더 좋아하는데 간음입니다. 입다는 그런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식구 중에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한 것은, 지도자이고 자기의 공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승리를 하고서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천한 자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으므로 쓸모없다고 버린 잡류들이 그에게 모였고,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왔어도 입다의 마음 아파함의 반응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승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죄적 성향을 죽이지 않으면 기드온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번제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서원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입다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입다는 왕 짱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을 때에 승리감에 도취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알고 그 자신을 죽이는 번제를 서원함으로 승리한 현장에서부터 승리감을 죽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 위치를 지켜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선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서 일이 잘 될 때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다의 무남독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안에서

승리가 주어질 때에 승리감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패배하는 것 같이 보여도 패배감을 죽임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승리로 보이든 패배로 보이든 오직 하늘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때로는 세상의 눈에 승리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이는 일이 번갈아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감에 대해서도 패배감에 대해서도 죽음으로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기쁨의 원천인 선민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